

해외의약뉴스

새로운 혈압 가이드라인은 약물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의약품정책연구소

개요

최근 발표된 2014년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목표혈압을 기존 140/90mmHg에서 150/90mmHg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18세 부터 59세 사이의 고혈압 치료를 받아야 하는 미국인 참여자는 기존의 가이드라인에서는 20%였지만,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9%로 줄어들었다. 또한 목표혈압에 도달한 성인은 기존 41%에서 48%로 증가되었다. 60세 이상의 고혈압 치료를 받아야 하는 참여자는 기존 69%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61%로 줄어들었으며, 목표혈압에 도달한 성인 참여자는 기존 40%에서 66%로 증가되었다.

키워드

고혈압, 가이드라인

대부분의 의사들은 확립된 혈압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며, 이 가이드라인은 고혈압 치료를 시작할 때 영향을 미친다. 목표 혈압 가이드라인의 작은 변화조차도 고혈압 치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연구는 새로운 혈압 가이드라인에 의해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혈압 환자들의 수가 감소 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연구진들은 고혈압 환자들이 혈압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들은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기존의 가이드라인이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혈압 치료를 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연구의 주요저자는 Anne Marie Navar-Boggan 박사¹⁾이다.

연구는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미국에서 시행된 건강과 영양 설문 조사(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에 응답한 16,372명의 성인을 분석하였다.

이전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성인의 목표혈압은 140/90mmHg 또는 그 이하였지만, 2014년도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목표혈압을 150/90mmHg 또는 그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환자들의 혈압이 목표혈압보다 높으면 고혈압 치료 대상으로 여겨진다.

1) 미국 듀크대 의학센터 순환기내과의

기존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만성신장질환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성인의 목표혈압은 130/80mmHg 또는 그 이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이들의 목표혈압을 140/90mmHg 또는 그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연구진들은 참여자들의 혈압을 측정했으며, 참여자들은 그들이 복용하는 혈압약을 자가 보고했다.

고혈압 치료 대상자는 각각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혈압보다 높은 혈압을 보유하거나 혈압을 어느 정도까지 낮춰야 하는 목표혈압이 있는 사람, 혈압치료를 받는다고 보고한 사람들로 정의된다.

조사결과 18세에서 59세 사이의 고혈압 치료를 받아야 하는 참여자는 기존의 가이드라인에서는 20%였지만 새로운 2014년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9%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가이드라인에서는 60세 이상의 참여자들 중 69%가 고혈압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61%가 치료를 받아야 했다.

기존의 가이드라인에서는 18세에서 59세 사이의 성인 41%가 목표혈압에 도달했지만, 2014년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는 48%가 목표혈압에 도달했다.

연구진들은 60세 이상 성인 중 목표혈압에 도달한 사람들은 기존의 가이드라인에서는 40%였지만,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66%로 증가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전체적으로 18세에서 59세 사이의 미국성인 2%와 60세 이상의 성인 28%가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이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목표혈압에 도달한 사람들이었다.

게다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350만 명의 성인은 더 이상 고혈압 위험군에 속한 것이 아니며 혈압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적용으로 인해 더 이상 혈압약의 복용이 필요 없는 580만 명의 미국인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고혈압의 관리를 위해 근거를 기반으로 한 권장사항을 제공하고 환자 대부분의 임상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더라도 이 권장사항이 임상적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다. 치료에 대한 결정은 신중해야하며, 환자 개개인의 임상적 특성과 환경이 통합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공동저자인 Eric D. Peterson²⁾은 “이 연구는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수의 고혈압 환자들이 치료의 그레이존³⁾으로 분류되는지 보강했다. 그레이존은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부분이며, 그레이존에 대한 더 많은 연구를 긴급하게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드러냈다.

2) MD, 연구 공동저자

3) 어느 영역에 속하지 않는 불분명한 집단

첫째, 미국 국립 건강영양조사원의 요구에 따른 혈압의 측정이 부정확할 수 있다.

둘째, 혈압약 복용은 자가 보고되었다.

셋째, 이 가이드라인은 당뇨병이나 신장질환 환자들에게는 다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17명의 저자 중 5명은 이전 가이드라인의 목표혈압이 변경되지 않도록 주장했다.

연구는 3월 29일자 JAMA에 게재되었으며, Duke Research Institute, M.Jean de Granpre와 Louis and Sylvia Vogel이 편당을 제공했다.

■ 원문정보 ■

<http://www.dailyrx.com/target-blood-pressure-lowered-new-guidelines#axzz2y9k5hL1o>